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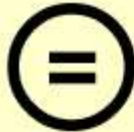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교육은 언어와 수학적 능력을 중요시하는 기존의 지능과 더불어 다중지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계발에 힘쓰고 있다. 가드너(Gardner, 1983)는 인간의 지능영역을 8개의 영역, 즉 언어적 지능, 논리-수학적 지능, 공간적 지능, 신체-운동적 지능, 음악적 지능, 인간관계지능, 자기이해지능, 자연주의적 지능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들은 독립적이며 동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지능의 우수성으로 전체의 능력을 논할 수 없다고 하였다. 가드너는 사람에 따라 지능의 수준에 차이가 있지만 그 모든 영역의 지능을 다 갖고 있다고 보고, 모든 사람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음악적 지능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인간의 지능이 균형 있게 발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악적 지능도 학교교육을 통하여 발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¹⁾ 이러한 가드너의 주장을 바탕으로 하는 현대교육에서는 각 지능의 동등한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고, 각각의 지능을 계발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교수방법을 마련하며, 실제 학교현장에서 이러한 교육이 실행되도록 하고 있다.

이중 음악적 지능은 예술적이고 감성적 부분으로 인간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데 이는 개개인의 '음악성'을 기본으로 한다. 음악성은 음악적 제 현상에 대한 식별력 및 음악적 상상력과 음악 행위의 능력, 음악적 통찰력 등을 포괄하는 총체로서의 음악적인 능력을 뜻하는데 이러한 음악적 현상에 대한 식별력, 상상력과 음악적 통찰력은 음악행위를 통해 길러진다.²⁾ 음악성은 '음악적성'(musical aptitude)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인의 음악적 가능성과 사회문화적환경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비의도적으로 형성된 음악적 능력'이라는 의미로 규정된다.³⁾ 음악성은 대체로 여러 가지 기준으로 측정 하는데, 특히 음악을 듣고 반응하여 조직화 하는 능력을 기본으로 측정 하며, 이것은 음악을 창작, 연주, 감상 하는데 기초가 되는 능력으로 간주된다.

1) 권덕원 외4(2005). 음악교육의 기초. 교육과학사. p 46.

2) 이홍수(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새광음악출판사. p 178.

3) 이홍수(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새광음악출판사. p 113.

음악을 인지하는 것은 다시 말해, 음악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요소들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소리' 로부터 발생되어지는 하나의 음악을 소리의 특성인 높이, 길이, 썸여림, 음색 등의 요소로 구분되어져 인식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음악을 인지하는 것은 그 음악의 수평적 조직(가락, 리듬), 수직적 조직(화성, 성부조직), 표현의 질(음색, 썸여림)을 인식한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음악을 듣고 인지하는 능력은 각각의 구조를 알고,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는 말로 설명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종류의 음악을 듣고, 각각 음악자체의 음색과 썸여림, 빠르기, 가락선, 박자, 리듬 등을 듣고 알 수 있으며, 또 다른 곡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음악 인지능력은 음악을 듣는 능력에서부터 출발한다. 음악 인지능력은 각 개인의 음악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고 음악의 표현 또한 음악성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음악을 받아들이고 표현 하는 것의 효율성 면에서 “듣는 능력”은 아주 중요한데 이는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음악을 듣고 의식 속에서 그 음악을 재생, 또는 재구성하는 “내청능력”을 필요로 하고, 우리는 이러한 능력으로 각 개인의 음악성을 판단하며, 음악적 활동을 하게 된다. 내청능력은 음악을 듣고 따라하거나 듣고 기억하기, 두 곡을 연결해서 부르거나, 즉흥적으로 창작해서 부르거나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는데. 이는 음악적인 인지능력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특히 작곡분야에 있어 청음 능력을 포함한 내청능력은 필수로 다루어지는데, 이것은 귀로 들은 것들을 기억하고 창작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음악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보함으로 표현에 까지 이르게 하는 능력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 능력의 유무에 따라 개인의 음악성이 판단된다.

그런데 내청능력은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주어진 능력들이 발견되어지거나 후천적으로 계발 하게 된다. 선천적인 능력은 음악활동이나 교육을 통하여 발견되어지고, 후천적인 능력은 조기의 음악교육과 음악적 흥미와 활동을 통해 발견되고, 훈련된다.

음악을 듣고 반응하는 능력의 신장은 아동의 음악성과 음악에 대한 친밀도를 높여주고, 음악에 대한 흥미와 생활 속에서의 음악에 대해 즐기는 태도를 갖게 하고 나아가 음악적 인지능력의 계발과 한 개인의 자아실현에 까지 기여하게 된다. 이것은 개인의 음악적 지능을 높이는데 그치지 않고 음악적 지능을 비롯한 다른 '다중지능' 영역들의 고른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중시된다.

때문에 각 가정에서는 선천적인 재능을 발견하고 훈련하고, 후천적인 능력을 계발함에 있어서도 관심을 갖고 교육하고 있다. 그 한 예로 대다수 가정에서 행해지는 기악교육을 들 수 있는데, 보통의 가정에서 유·초등 중등기간에 걸쳐 기악실기 향상을 위한 레슨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자녀에 대한 조기기악교육을 통해 자녀의 음악적 경험과 활동을 통해 음악적 인지능력을 가르치는 방법이 되고 있다. 아동에게 행해지는 조기기악교육을 바탕으로 아동의 음악적 능력신장과 더불어 정서적인 안정을 통한 학습의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각 가정에서 음악성 신장을 기대하여 행해지는 기악교육이 학생의 실제적 음악성과 음악 인지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중학교 학생들의 기악교육 경험의 유무와 음악에 대한 흥미도를 알고, 음악 인지능력, 음악적성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조사하여, 조기기악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음악성 계발을 위한 기악교육을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문제

첫째, 15세 이전의 기악교육과 현재의 리듬과 가락에 의해 측정되는 음악 성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둘째, 15세 이전의 기악교육과 현재의 음악 인지능력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셋째, 기악교육 경험과 음악 흥미도는 관계를 갖고 있는가?

넷째, 음악에 대한 흥미도와 음악성은 관계를 갖고 있는가?

다섯째, 음악에 대한 흥미도와 음악인지 능력은 관계를 갖고 있는가?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두었다.

첫째, 음악교육 중 기악교육만을 조사하여 음악적성, 음악인지 능력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음악교육을 경험하였던 나이의 범위를 유·초등, 중등학교 범위의 '15세 이전'으로 정하였다. 이는 다른 조기음악교육과는 달리 신체적 발달이 따라주어야 시작할 수 있는 기악교육의 특성에 따라 너무 어린 연령으로 제한하기에 따른 어려움과 대다수의 기악교육이 중학교 이하범위에서 많이 시작되고, 또 15세 전후에 아동의 흥미와 학부모의 견해에 따라 기악교육이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로 15세 이전에 행해진 기악교육으로 범위를 정하였다.

셋째, 음악적환경의 범위를 음악교육의 유무, 학부모의 음악교육 여부, 음악에의 관심, 가정안에서의 음악활동만으로 정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서울시내 소재 중학교 2곳, 경기도 안산시 중학교 1곳으로 연구대상 학생을 한정하였기 때문에 모든 학생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4. 용어정의

1) 음악적 환경 - 조기기악실기교육과 마찬가지로 15세 이전까지 가정에서의 음악에 대해 접촉할 수 있는 환경, 교육여부, 관심유무, 부모의 음악적 경험 유무를 중점으로 '음악적 환경'으로 한다.

2) 음악성 - 음악성은 '음악적성'(musical aptitude)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인의 음악적 가능성과 사회문화적환경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비의도적으로 형성된 음악적 능력'이라는 의미로 규정된다.

3) 음악인지 능력 - 음악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요소들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어느 정도의 환경적 요인과 교육을 통한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의도적이고 성취도 중심의 개념이다. 본 논문에서 음악 인지능력은 음악의 수평적 조직(가락, 리듬), 수직적 조직(화성, 성부조직), 표현의 질(음색, 셈여림)을 인식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조기음악교육의 중요성 및 영향

1) 조기음악교육의 중요성

적절한 시기를 통한 교육의 효과는 그렇지 않은 교육에 비해 확연한 효과를 가져다준다. 개인의 발달정도에 맞는 교육이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통해 이루어 질 때 교육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인간의 내면적 감정세계와 정서적 발달 수준에 민감히 반응하는 음악을 다루는 음악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발달 시기에 알맞은 방법과 내용으로 이루어 질 때, 그에 따른 음악성과 음악적 능력이 최대한으로 계발, 발전 될 수 있다.

코다이(Zoltan Kodaly)는 예술교육에 관한 한 국제회의에서 '몇 세에 음악교육을 시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태어나기 아홉 달 전부터"라고 대답하였다. "만약 어린이가 그 시기에 음악적 능력을 펴지 못한다면 그것은 음악과 관련된 운명에 손상을 입은 셈이며, 그는 그것을 평생토록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말하였다.¹⁾ 이것은 조기음악교육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이다. 조기에 이루어진 음악 교육을 통해 아동의 음악성이 발견되고, 적절한 교육을 통해 더욱 나은 음악성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이때 이루어 지지 못한 교육으로 인해 한 개인의 음악성은 발견조차 되지 않고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아동기의 중심은 10세 전후 경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시기는 음악적 능력의 발달 면에서 여러 가지 특색을 지닌 시기이기도 하다. 헤커(Haecker)와 쯔(Ziehen)의 조사에 따르면 '유아의 발달단계에 따른 음악적 능력의 발현시기'는 남녀모두 10세 정도이고, 10세 이후에는 급격하게 감소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발현 시기는 빠르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그 반면 능력의 감퇴시기도 매우 급속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기야 말로 음악적 능력 발현의 최적의 시기로 볼 수 있다.

또 영국의 심리학자 겔톤(Sir Francis Galton)에 의하면 "음의 변별능력으로서

1) 이홍수(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세광음악출판사. p 332.

의 청각각은 대체로 10세경에 정점을 이루고, 50세경부터 직선적 하강을 하며 급속히 쇠퇴해 간다. 또한 단순히 음을 듣기만 하는 청반응은 20세-25세에 정점을 이르고 그 이후부터는 하강하기 시작하는데, 그 감퇴는 매우 완만하여 급속한 쇠퇴를 보이지는 않는다” 고 한다. 때문에 10세전후의 아동에 대한 음악적 경험과 훈련을 통한 “내청력” 계발은 개인의 음악적 능력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청각기능의 발달단계는 개인차도 현저하고 또한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는 점에서 반드시 결정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표준적인 자료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음악인지 능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내청력은 다른 의미로 고든(E. Gorden)의 ‘오디에이션’(Audiation)과 비슷하게 설명되는데, 이는 음악의 재료인 소리를 내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오디에이션의 정의 안에 내청력이 포함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내청력 발달은 아동이 음악을 받아들이고 향유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이는 어릴 때의 음악적 환경이나 음악적 경험에 따라 발달된다. 고든(E. Gorden)은 아동의 타고난 잠재력과 초기경험이 상호작용 하여 음악 적성에 기여하게 되는데 아동의 음악적 환경이 풍요로우면 그가 태어날 때 지닌 잠재력을 보유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잠재력을 상실한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음악적성은 9세경까지 개발되며 그 이후는 불변하는 음악적성이라 하였다. 따라서 음악적 능력의 결정적 시기라고 볼 수 있는 아동기에 어떠한 음악적 환경을 경험하는가 하는 것은 음악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가정의 음악 환경이 아동의 음악적 능력과 관련이 있으며, 음악환경이 잘 조성될수록 음악적 능력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따라서 가정의 음악환경을 풍부하게 조성하여 아동의 음악적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힘써야 함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시기의 교육은 대부분 가정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정 내의 환경이나 분위기, 교육 분야 우선순위에 대한 부모의 관심도와 부모의 음악능력에 따라 가정 내 음악교육의 중요도가 달라진다. 부모가 좋아하는 것이나 분야에 아동은 자연스럽게 노출되기 쉬우며 당연히 접할 기회가 많아지게 되고, 또한 어릴 때 접한 내용들은 내면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되어지기 쉽다. 따라서 음악적 능력의 발달을 위해서는 어려서 부터의 음악적인 환경과 조기교육을 통해 음악을 쉽게 접하고 체계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음악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

2) 조기음악교육의 영향

모든 사람에게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음악적 자질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것은 환경이나 개인의 흥미정도에 따라 계발되고 발전된다. 사람의 음악적 자질은 9세를 전후로 고정되기 때문에 이전에 행해지는 음악교육은 그 어떤 분야의 교육보다 우선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성장 시켜야 한다. 적절한 음악조기교육을 통해 아동의 음악적 자질을 발견, 훈련시키면 음악적 정서와 더불어 음악성 향상, 나아가 고도의 음악적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또 어떤 교육도 그 분야의 성장과 더불어 다른 분야(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지적)의 발달을 공유하게 된다. 조기음악교육은 음악적 인지능력과 음악적 자극을 통한 심미적 경험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과정을 통해 아동의 전인적이고 전체적인 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음악은 사회적인 기반위에서 사회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음악을 통해 아동은 사회성과 책임감을 기르게 되며, 특히 조기음악교육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과 함께 좋은 인성을 형성해 가게 되고, 음악활동을 통해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현하여 심미적인 경험을 하고, 음악을 감상함으로써 얻어지는 만족감과 안정감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정서적 안정과 인격형성에 도움이 된다. 또한 음악적 지능의 발달로 또 다른 8개 영역의 지능에 더불어 지적발달에 도움이 되고, 음악을 습득하는 단계적인 학습방법을 통해 지적인 성장을 도우며, 리듬학습과 기악교육을 통하여 신체적인 발달을 가져오게 된다. 이처럼 조기음악교육은 음악적 능력, 즉 음악성 발달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연주능력 외에 잠재된 다양한 능력 개발과 아동의 사회적, 정서적, 지적, 신체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²⁾

2) 김수진(2006). 조기음악교육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 중학생을 중심으로 .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 음악 인지능력과 음악적성

1) 음악 인지능력 (musical cognition)

음악능력은 음악인지 능력과 음악적성을 포함 하는 데 학자에 따라 동의어로 쓰이거나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보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정의와 영역을 구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음악적성은 "잠재적인 음악적 능력"으로 정의되고, 음악인지 능력은 "음악적 학습의 결과로 얻어진 인지적 능력"으로 구별할 수 있다. 스킨(Scheon)은 음악적 능력은 연습이나 경험에 의해 후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선천적인 음악적 자질과 구분하였으며,³⁾ 래도시(Radocy)와 보일(Boyle)은 유전적 자질이나 성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을 음악적 재능이라 하고, 자질과 비형식적인 환경으로부터 습득되는 것을 음악적성이라 하며, 자질, 환경적 요인, 형식적 교육으로부터 습득되는 것을 음악적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음악적 능력에 포함되는 '음악적성'과 '음악 인지능력'에 대하여 '음악적성'은 선천적 요인과 교육이나 훈련으로 얻어진 후천적 요인을 바탕으로 생성된 '의도되지 않은 음악적 자질'로 정의하고, '음악 인지능력'은 음악적성을 바탕으로 하여 학습과 훈련으로 얻어지는 '의도된 학습효과로 나타나는 성취중심의 음악적 능력'으로 정의하여 '음악적성'과 '음악 인지능력'을 구별하고자 한다.

학자마다 약간의 견해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은 김영연(2002)의 연구를 바탕으로 개념을 정리하면 음악적 인지능력은 음악요소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여기에는 음의 구별력(musical discrimination), 음의 식별력(musical identification), 음의 분류력(musical categorization), 음의 순서화 능력(musical ordering), 음의 기억력(musical memory recalling) 등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⁴⁾⁵⁾ '음의 구별력'은 서로 다른 음을 듣고 같은지 다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며 '음의 식별력'은 서로 다른 음을 듣고 알아맞히는 능력이다. '음

3) Scheon. M.(1940). The Psychology of music. New York: Ronaldo Press.

4) 김광자(2004). 포괄적 음악교육에 기초한 유아의 음악적 능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22

5) 김영연(2002). 유아교육론. 학지사.

의 '분별력'은 연주된 여러 가지 음을 듣고 음의 개념에 의해 그룹화 하는 것을 말하며, '음의 순서화 능력'이란 그룹화한 음을 정해진 음 개념에 의해 그룹화 하는 것이며 '음의 기억력'은 듣는 음을 장기적, 또는 단기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음악인지 능력은 음악적 능력에 포함되는 하나의 요소로, 후천적인 환경이나 교육

에 의해 습득되어 음을 구별하고 식별하며, 나아가 음을 분별하고 기억하는 능력을 악곡 전체에까지 확대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볼 수 있다. 이 능력은 반드시 단계적으로 습득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연계성을 갖고 있다.

음악적성과는 구별되어 사용되는 음악인지 능력은 선천적인 음악적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다양한 경험과 훈련을 통하여 더 나은 인지능력을 얻고 발전될 수 있다. 음을 구별, 식별, 분별, 순서화, 기억하는 능력은 짧은 단위의 음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하여 프레이징, 악구, 악곡전반에 이르는 음악의 영역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시각을 넓혀주는 것이다. 따라서 음악인지 능력은 음악을 이해하고 새로운 음악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 분석적이고 체계적으로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2) 음악적성

음악능력의 영역 중 하나인 음악적성은 '음악성'으로 정의되기도 하는데, 쉽게 말해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진 음악적 능력"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즉, 현재의 음악적 능력이나 지능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이나 훈련을 통해 음악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그 성취의 정도를 예견할 수 있는 척도가 되어주는 것을 말한다.

음악적 능력에 대한 용어는 학자마다 다른 용어로 정의 되는데, 고든(Gordon, 1987)은 음악적성이란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가능성, 또는 잠재력이라고 정의하며 그 특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6) 7)}

6) 안재신(2004). 유아음악교육. 교육과학사. p. 14

7) 현경실(2004). 한국음악적성검사. 학지사. p. 22

- 첫째, 정상인 이라면 누구나 음악적 자질을 가지고 태어난다.
- 둘째, 음악적성은 정상분포를 이룬다.
- 셋째, 타고나는 음악적 자질은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
- 넷째, 음악적 자질은 타고나는 것 이상으로 환경적 요소가 중요하며, 어릴수록 그 미치는 영향이 크다.
- 다섯째, 9세 이전에 음악적 자질은 모두 형성 된다.
- 여섯째, 음악적성과 지능지수에는 상관성이 없다.

고든은 이러한 특성을 제시하며 음악성의 선천, 후천적인 요인들을 설명하였다. 요약하면 '음악적성이란 대체적으로 정상분포를 이루는 정상인의 음악성 발달은 9세 이전의 음악적 환경과 자극이 주어질 때 발달 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어려서 확립되는 음악적성은 소리를 인지하는 능력과 관련이 깊다.⁸⁾ 소리를 인지하는 능력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은 모국어를 습득하는 능력인데 이것은 음악적 성 향상을 위한 교육방법이 언어교육방법과 큰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언어학자 촘스키(Chomsky)⁹⁾는 사람은 누구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보편적 언어 소질을 타고 나는데 이것은 어떤 문화를 접하느냐에 따라, 접한 특정언어를 배울 수 있는 능력만이 개발되어 그 소질이 고정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그 소질이 고정되기 전에 가능한 많은 언어문화를 접해야 여러 가지 언어를 무리 없이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음악을 배우는 것 또한 선천적인 음악적 자질에 어릴 때 접하게 되는 특정 문화와 결합하여 한 개인의 음악적 적성, 즉 음악성이 결정되고 고정되는 것이다.

때문에 다양하고 폭 넓은 음악성 개발을 위해서는 특정문화뿐 아니라 다양하고 체계적이며 치우치지 않은 음악적 환경과 여러 문화들을 포함시킨 구체적인 교과 과정을 바탕으로 하는 음악교육이 필요하다.

8) 현경실(2004). 한국음악적성검사. 학지사. p. 25

9) Chomsky, Noam(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Mass : MIT Press

3. 선행연구

음악적 능력과 음악적 환경에 따른 음악성 향상에 대한 연구는 음악적성의 발견과 훈련이라는 측면에서 계속 연구되어왔다. 음악적 능력은 그 능력이 고착되기 전 조기에 발견하고 자극을 주어 훈련하였을 때, 더 나은 능력으로 발휘 될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을 계발하기 위한 도구가 조기 음악교육이 되는 것이다. 조기에 음악적 자극을 받고 음악적 능력을 훈련하였을 때 아동은 높은 음악성을 갖게 되고, 높은 음악성을 바탕으로 음악적성과 음악적 흥미를 갖고 음악적 활동과 음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온다.

이러한 조기음악교육과 음악적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로 음악적 환경과 음악적성의 관계연구, 둘째로 음악적성과 음악성취도 간의 관계연구이다

안이화(2003). 음악환경과 청음능력과의 관계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을 창작, 연주, 감상하는 활동은 음을 듣고, 단순화 시키고, 기억하는 청음 활동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러한 청음 능력은 선천적인 요인의 영향과 더불어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의 가정환경이나 음악적 경험의 기회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연구자는 음악에 대한 선호도, 학교교육 외부의 음악관련 교육의 유무와 기간, 가정의 물리적 음악환경(거주지의 환경, 집의 크기, 경제지위, 내부분화시설), 가정의 심리적 음악환경(가정 내의 심리적 분위기)의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진 음악환경 조사 설문지와 청음능력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음악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음악적 교육경험이 있을수록, 가정의 물리적·심리적 환경이

잘 조성될수록 더 나은 청음 능력을 갖고 있었다. 특히 선율의 움직임이나 음악 인지 부분에서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분이 일상생활에서 음악을 접할 기회가 더 많음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청음능력 향상은 학습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그 이전의 음악환경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시설과 가정의 음악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조정미(1998). 청음능력과 음악성적 및 음악환경의 관계연구

-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연구자는 청음능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감상능력은 가능하나 음악의 구성요소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학생일수록 즉, 청음능력이 좋은 학생일수록 실기성적이나 이론 성적 면에서 우수하다고 보고, 음악교육에 있어서 청음능력은 음악자체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한 것이며, 음악을 이해하는 첫걸음이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였다. 특히 음악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 재료는 '음(音)'으로서 기본적으로 음을 듣고, 이해하고, 기억하는 단계까지 갈 필요성을 학생들에게 인식시켜야 하기 때문에 청음능력의 파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음악적 환경과 청음능력 수준의 중요한 상관성이 있음을 연구문제로 제시하면서 청음능력과 음악성적, 청음능력과 음악적 환경을 조사하여 그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청음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음감식별, 조성, 선율반복진행의 유형 및 프레이즈 구분의 이해를 통한 청음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청각적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4주에 걸쳐 여자중학교 2학년생 420명을 대상으로 테스트 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해 음악의 선호도와 음악적 환경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청음능력과 음악성적은 대체적으로 비례하는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는 청음능력이 악기를 연주하거나 음악적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악적 환경과 음악에 대한 긍정적인 선호도를 갖고 있는 학생이 청음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적 환경과 적절한 교육을 통한 청음능력 향상이 필요함을 보여 주

었다고 할 수 있다.

배성애(2000). 음악적성 및 음악흥미와 음악성취도 간의 관계

-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우리나라 학생의 대부분이 어려서부터 유치원, 학교수업, 방과 후 교실, 사교육 등을 통한 음악교육을 받고 있다. 전문가가 되려는 학생도 있고 취미와 흥미를 갖고 배우는 학생도 있으며, 부모의 권유나 강요에 의해 교육받거나, 사회적 분위기에 이끌려 교육되는 학생도 있지만, 어떠한 형태와 계기이든 보다 음악적 정서 함양에 뜻을 두고 높은 음악성 성취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학습에 있어서 음악적 성취를 높이는 일은 환경적요인(가정환경, 학급 및 학교의 환경, 사회적 및 문화적 배경), 학습자요인(적성, 성격, 동기 등), 학습자체에 관련된 요인(선행학습, 학습전략), 교수에 관련된 요인(교수체제와 방법, 평가 체제와 방법, 교사의 특성 등) 등이 있지만 학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습자 요인이 된다.

때문에 연구자는 이러한 학습요인 중 음악적성, 음악흥미 및 지능 등이 음악성취도에 얼마나 관련이 되는 지의 상관관계를 밝혀 음악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음악교수법을 찾고자 하며, 또한 개인의 음악적성과 성취도를 결정하는 개인의 심리적 특정 변수를 발견하여 학생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교수학습 지도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Gordon의 'AMMA(음악적성검사)', 질문지를 사용한 음악의 흥미도 조사, 가창성취도, 청음성취도, 종합지능검사를 통해 음악적성 및 음악흥미와 음악성취의 상관관계를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음악적성과 음악성취도는 뚜렷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둘째, 음악흥미 또한 음악적성과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셋째, 음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 변수는 음악흥미, 적성, 지능의 순으로 나타났고 넷째, 지능과 음악성취도 간의 상관성은 유의미 하지 않았으며 다섯째, 음악적성 및 음악흥미와 음악성취의 남녀 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조사, 분석한 연구자는 음악성취의 향상을 위해서 음악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의 마련과 음악적성보다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던 '음악적 흥미'를 개발할 수 있는 방안과 효과적인 음악성취도 검사도구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임인경(2006). 바이올린 특기·적성교육이 음악적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특기적성교육 중 하나인 '바이올린' 실기 지도교과의 형태와 교수방법, 효과 등을 조사하여 바이올린 특기적성 교육이 유동적인 음악적성(Developmental Music Aptitude)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음악적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는 기초자료를 마련, 제공함으로써, 바이올린 특기적성교과의 활성화 방안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3년 이상 바이올린 교육을 받아온 초등학교 3학년 학생 57명을 대상으로 한국음악적성검사(KMAT)와 바이올린 성취도 검사, 바이올린 지도현황과 환경, 음악적 흥미도 검사를 위한 질문지 검사를 사용하여 바이올린 특기적성 교육이 음악적성에 미치는 상관관계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바이올린 특기적성 교육이 음악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론지으며 더 효과적인 음악적성 발달을 위한 특기적성 교육의 강화와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특기적성 교육 평가 기준 마련을 제안하였다.

박현주(2004). 실음인지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인간이 음악을 듣는 첫 단계는 음을 인지하는 것이다. 음악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음으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으로서 청각예술이며 음악에 대한 느낌, 이해, 반응이 사람의 귀를 통해 파생됨으로 음악을 경험하게 될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귀로 듣게 되므로, 모든 음악은 듣기 경험인 만큼 실음능력 향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므로 개개인에게 적당한 시기에 '음악적인 귀'를 가지게 함으로써 음악

을 깊이 인식하게 하고 좋은 귀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기음악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연구자는 음감의 발달과정, 음악에 대한 적극성을 연구하고 현재 음악교육의 상황, 음감실태를 조사하여 학생들을 향한 적극적인 음악교육의 실현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연구, 분석하였다. 조기음악교육 실시 유무를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음감발달상황을 연구자가 작성한 검사지를 바탕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음악적 교육을 꾸준히 받아온 학생들은 그렇지 못한 학생에 비해 음감의 인지능력이 좋게 나타났고, 또한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음감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 조사 결과 음악적 환경이과 청음능력, 청음능력과 음악성적, 음악적성과 음악성취도, 음악적 흥미와 음악성취도에 관한 연구들을 찾을 수 있었지만 기악교육과 음악적 흥미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부분은 부족하다고 느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는 기악교육과 음악적성간의 상관관계의 자료를 바탕으로 음악적 인지능력을 포함한 음악적성과 기악교육 경험 간의 상관관계와 기악교육을 통한 음악적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 연구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의 중학교 2곳과 경기도 안산시 소재의 중학교 1곳의 남녀 재학생 285명을 대상으로 하되, 연구에 필요한 연구도구에 충족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의 특성상 『학생 설문지 - 학부모 설문지 - 검사지』가 하나의 세트로 이루어져야 연구의 분석과 통계, 결론 도출의 조건이 되는 데 그렇지 못한 것들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검사대상 남녀 중학생 285명 중 연구도구로 사용가능한 검사-설문지를 제출한 152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도구

1) 조기기악교육경험을 조사하는 설문지

학생 개인의 음악적 경험과 환경, 기악교육과 음악에 대한 흥미도 등을 중학교 학생과 조사대상의 학부모를 포함하여 설문조사 방법으로 사전 조사 하였다.

(1) 개발목적

연구대상의 기악교육 경험과 음악적 흥미도, 가정의 음악적 관심과 환경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인 중학교 학생용 설문지를 개발하고, 학생들의 기악교육과 음악적 경험의 결과도출을 위해 자녀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기억을 갖고 있는 학부모용 설문지를 함께 개발하였다.

(2) 개발절차

설문조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도출을 위해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세부영역과 내용을 조사하여 목적과 문항별 타당한 조건을 세워 지도교수의 지도와 연구

를 통하여 본 연구에 맞는 내용으로 작성하였다.

(3) 내용

학생의 기악교육을 통한 음악적 경험과 음악적 흥미도를 조사하였는데, 기악교육 시작연령, 기간, 성취도에 따른 결과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15세이전 기악교육'이라는 주제의 특성상 학생의 기억에만 의존하는 데 무리가 있어 연구대상 학생과 학부모를 동시에 설문 조사하여 설문의 정확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전체문항은 학생용 15문항, 학부모용 10문항으로 간단한 주관식 문제와 5점척도로 이루어진 객관식 문제로 이루어져 있다. 학생용 설문지와 학부모용 설문지의 세부 항목과 내용, 영역별 주제는 다음과 같고 설문지 본문은 <부록1>에 수록하였다.

가. 학생용 설문지

음악에 대한 흥미도와 음악교육 경험의 2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는데 설문조사를 통하여 학생의 기악교육 경험의 유무와 각 악기의 종류, 그에 따른 흥미도, 음악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가정 내의 전반적인 음악적 환경을 조사하였다.

<표1> 학생용 설문지 영역별 내용

영역	주제	문항내용
제 1영역	음악에 대한 흥미도 측정 (1~6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에 대한 개인적인 흥미도 • 좋아하는 음악의 장르 • 좋아하는 악기와 연주할 수 있는 악기의 종류
제 2영역	음악교육의 경험 (7~15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정규수업의 외적인 음악교육의 경험 유무와 종류, 시작연령, 기간 • 음악교육의 동기 • 음악교육의 흥미도 • 가정에서의 음악적 경험 유무와 빈도

나. 학부모용 설문지

학부모의 음악적 흥미와 음악교육 경험의 유무를 묻는 영역과 자녀의 음악교육 내용을 묻는 영역, 총 2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학부모의 음악적 흥미도와 음악교육 경험, 자녀의 음악교육의 유무, 종류, 연령, 기간과 흥미, 성취도, 가정 내의 음악적 환경 등을 조사하였다.

<표2> 학부모 설문지의 영역별 내용

영역	주제	문항의 내용
제1영역	학부모의 음악적 흥미와 음악교육의 유무 (1~2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의 음악적 흥미도 • 학부모의 음악교육의 경험 유무
제2영역	자녀의 음악교육 (3-10 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음악교육 경험유무, 종류, 시작 연령, 기간 • 자녀의 음악교육에 대한 흥미도와 성취도 • 가정에서의 음악적 환경

2) 음악적 인지능력 검사

최은식 교수의 “음악 인지능력 검사”를 통하여 기초적인 음악인지 능력검사를 연구대상인 중학교 남녀학생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검사는 초등, 중등용으로 나뉘어 구성된 음악 인지능력 검사로 본 논문에서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지를 사용, 중학교 1, 2, 3학년의 음악인지 능력을 검사하였다.

(1) 검사내용 및 영역

내용은 가락·화음 검사, 리듬·박자 검사, 가락선·주선율 검사, 형식·성부 조직 검사 등 4가지 영역이 각각 2개의 영역씩, 즉 모두 8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검사는 녹음된 CD로 진행되고 문제와 답안지의 예는 다음과 같다.

가. 가락·화음검사

각 영역별 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가락검사와 화음검사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검사하는 데, 각 영역별로 두 개의 가락과 화음을 들려주고 처음의 것과 두 번째의 것이 같은지 다른지를 구별하여 같은 것을 찾는 문제이다. 가락을 연주하는 악기는 피아노와 현악기를 사용하여 녹음되어 있다.

<그림1> 가락·화음검사

가 락 · 화 음 검 사	
<p style="text-align: center;">【 가 락 】</p> <p>• 설명을 잘 듣고 문제를 풀어보세요.</p> <p><연습문제 1> ① _____ ② _____√_____</p> <p><연습문제 2> ① _____ ② _____</p> <p style="background-color: #cccccc; padding: 2px;"><1번></p> <p>① _____ ②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 화 음 】</p> <p>• 설명을 잘 듣고 문제를 풀어보세요.</p> <p><연습문제 1> ① _____√_____ ② _____</p> <p><연습문제 2> ① _____ ② _____</p> <p style="background-color: #cccccc; padding: 2px;"><6번></p> <p>① _____ ② _____</p>

나. 리듬·박자검사

각 영역별 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리듬검사는 두 개의 리듬을 들려주고 처음의 것과 두 번째의 것이 같은지 다른지를 구별하여 같은 것을 찾는 문제이고, 박자검사는 간단한 멜로디의 음악을 연주하고 해당하는 계통의 박자를 찾는 것이다. 리듬연주는 타악기로 연주되고 박자는 앞의 가락검사와 같이 피아노와 현악기를 사용한 음악으로 녹음되어 있다.

<그림2> 리듬 · 박자검사

리듬 · 박자 검사	
<p style="text-align: center;">【 리듬 】</p> <p>• 설명을 잘 듣고 문제를 풀어보세요.</p> <p><연습문제 1> ① <u>√</u> ② _____</p> <p><연습문제 2> ① _____ ② _____</p> <p style="background-color: #cccccc; padding: 2px;"><11번></p> <p>① _____ ②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 박자 】</p> <p>• 설명을 잘 듣고 문제를 풀어보세요.</p> <p><연습문제 1> ① <u>2박자</u> ② 3박자</p> <p><연습문제 2> ① 2박자 ② 3박자</p> <p style="background-color: #cccccc; padding: 2px;"><18번></p> <p>① 3박자 ② 6박자</p>

다. 가락선 · 주선율 검사

각 영역별 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가락선 검사는 주어진 멜로디를 듣고 그림으로 표현 되어있는 선을 움직임의 방향성을 찾는 형식으로, 주선율 검사는 합주하는 곡을 듣고 주선율의 성부위치를 그림에서 찾는 형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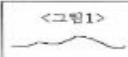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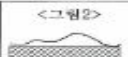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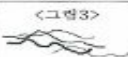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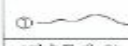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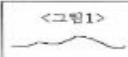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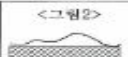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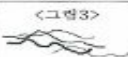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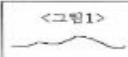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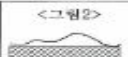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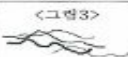
<그림3> 가락선 · 주선율 검사

가락선 · 주선율 검사	
<p style="text-align: center;">【 가락선 】</p> <p>• 설명을 잘 듣고 문제를 풀어보세요.</p> <p><연습문제 1> ① <u>↗</u> ② ↘ ③ →</p> <p><연습문제 2> ① ↗ ② ↘ ③ →</p> <p style="background-color: #cccccc; padding: 2px;"><21번></p> <p>① ↗ ② ↘ ③ →</p>	<p style="text-align: center;">【 주선율 】</p> <p>• 설명을 잘 듣고 문제를 풀어보세요.</p> <p><연습문제 1> ① <u>_____</u> ② _____</p> <p><연습문제 2>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p> <p style="background-color: #cccccc; padding: 2px;"><26번></p> <p>① _____ ② _____</p>

라. 형식 · 성부조직 검사

역시 각 영역별로 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어진 곡을 듣고 수식으로 이루어진 곡에 알맞은 구성형식을 찾고, 영상적 방식으로 만들어진 그림과 악곡의 성부조직을 연결시키는 형태로 구성되어있다.

<그림4> 형식 · 성부조직 검사

형식 · 성부조직 검사							
<p style="text-align: center;">【 형식 】</p> <p>• 설명을 잘 듣고 문제를 풀이하세요.</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 <tr> <td>$a+a$: 같은</td> <td>$a+a'$: 비슷함</td> <td>$a+b$: 다른</td> </tr> </table> <p><연습문제 1> ① $a+a$ ② $a+a'$</p> <p><연습문제 2> ① $a+a$ ② $a+b$</p> <p style="background-color: #cccccc; padding: 2px;"><31번></p> <p>① $a+a$ ② $a+b$</p> <p style="background-color: #cccccc; padding: 2px;"><32번></p> <p>① $a+a'+b+b$ ② $a+a'+b+a$ ③ $a+b+a+b'$</p> <p style="background-color: #cccccc; padding: 2px;"><33번></p>	$a+a$: 같은	$a+a'$: 비슷함	$a+b$: 다른	<p style="text-align: center;">【 성부조직 】</p> <p>• 설명을 잘 듣고 문제를 풀이하세요.</p> <table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33%;"><그림1> </td> <td style="width: 33%;"><그림2> </td> <td style="width: 33%;"><그림3> </td> </tr> </table> <p><연습문제 1> ①  ②  ③ </p> <p><연습문제 2> ①  ②  ③ </p> <p><연습문제 3> ①  ②  ③ </p> <p style="background-color: #cccccc; padding: 2px;"><36번></p> <p>①  ②  ③ </p>	<그림1> 	<그림2> 	<그림3> 
$a+a$: 같은	$a+a'$: 비슷함	$a+b$: 다른					
<그림1> 	<그림2> 	<그림3> 					

(2) 검사절차

각 영역은 5문항씩 구성 되어 있으며 실음평가(듣기평가)로 이루어진다. 원래의 선율이나 리듬, 박자를 듣고 같은 것을 찾거나 다른 것을 구별하는 형식, 주선율을 듣고 음악에서 주선율이 나타나는 성부를 찾는 형식, 프레이즈의 구성을 듣고 그림으로 찾는 형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음악적성검사

현경실 교수의 "한국 음악적성 검사"를 통하여 연구대상인 중학교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음악적성검사를 실시하였다.

(1) 리듬검사

음악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리듬'을 통하여 "박자의 개념을 포함한 길고 짧은 음의 모임"으로 정의된 리듬영역을 사용하여 검사한다. 문항 앞에서 예비 박을 통하여 박자감을 알고 두 마디 단위의 리듬을 들려주고 또 다른 리듬 패턴을 들려주고 '같은 가'와 '다른 가'를 구별하게 한다.

(2) 가락검사

리듬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인 '가락'을 통하여 "음감"을 측정하여 검사한다. 리듬검사와 마찬가지로 두 마디 단위의 가락을 들려주고 또 다른 가락패턴을 들려주고 '같은 가'와 '다른 가'를 구별하게 한다. 각 문항의 가락은 가락선과 방향을 구조적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3. 연구절차

- 1) 중학교 1, 2, 3학년의 남녀학생 285명과 각 학생의 학부모 28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15세 이전의 기악교육과 성장기간 동안 각 가정의 음악적 경험, 음악적 환경, 음악흥미도를 사전 조사하였다.
- 2) 서울과 안산소재 중학교 1, 2, 3학년의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음악 인지능력검사”를 통하여 음악인지 능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 3) 중학교 1, 2 학년의 남녀학생 103명을 대상으로 "한국음악적성검사(KMAT)"를 통한 음악적성검사를 실시하였다.
- 4) 세 가지 검사내용을 토대로 하여 15세 이전의 기악교육과 음악 인지능력, 음악적성, 음악흥미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4. 연구 분석 방법

본 연구의 통계, 분석은 SPSS 14.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성별과 나이 등 차이수준을 위하여 t-test와 ANOVA검증을 실시하였다. (유의기준은 $p < .05$ 로 하였다.) 음악적성검사와 음악인지능력 검사의 신뢰도는 크론바흐(Cronbach)의 알파계수로 구했다.

15세 이전의 기악교육과 음악적성, 음악인지능력, 음악흥미도 간에 상관분석을 하였다. 음악적성검사는 가락30점, 리듬30점으로 총점 60점으로 계산하였으며, 음악인지능력 검사는 각 영역별 5점씩 8영역이므로 총점 40점으로 계산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분석

1.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1) 학생 설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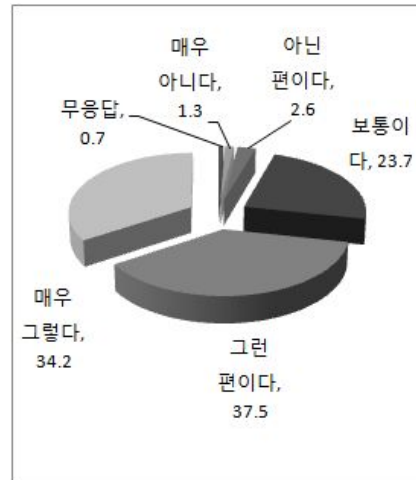
연구대상인 중학교 1, 2, 3학년 학생들에게 음악적 흥미, 기악교육경험의 유무, 시작연령, 교육 기간, 가정 내 음악적환경을 질문지를 통해 조사하였고, 결과에 따라 항목별로 빈도 분석하였다.

(1) “나는 음악을 좋아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표3>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 빈도표

	빈도	퍼센트
무응답	1	0.7
매우 아니다	2	1.3
아닌 편이다	4	2.6
보통이다	36	23.7
그런 편이다	57	37.5
매우 그렇다	52	34.2
합계	152	100.0

<그림5>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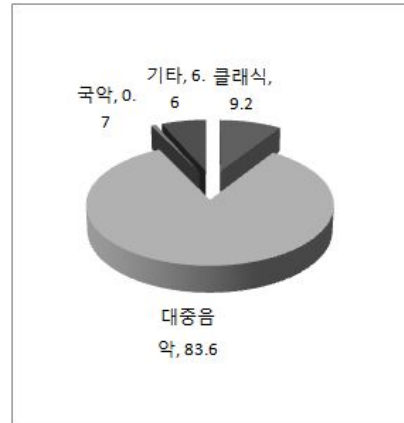
「음악을 좋아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대체적으로 많았다. 생활에서 쉽게 음악을 접할 수 있는 매체가 늘어나면서 음악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늘어나 과반수를 넘는 71.7%의 학생이 음악을 좋아한다고 답변하였다.

(2) 좋아하는 음악의 장르는 어떤 것인가요?

<표4> 좋아하는 음악장르 빈도표

음악장르	빈도	퍼센트
클래식	14	9.2
대중음악	127	83.6
국악	1	0.7
기타	10	6.6
합계	152	100.0

<그림6> 좋아하는 음악장르 분포



대중음악(발라드, 댄스 포함)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매체를 통한 접근이 쉬운 장르가 대중음악이기 때문에 대중음악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음악장르에 비해 83.6%로 높은 결과가 나왔다.

(3) 좋아하는 악기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악기를 좋아 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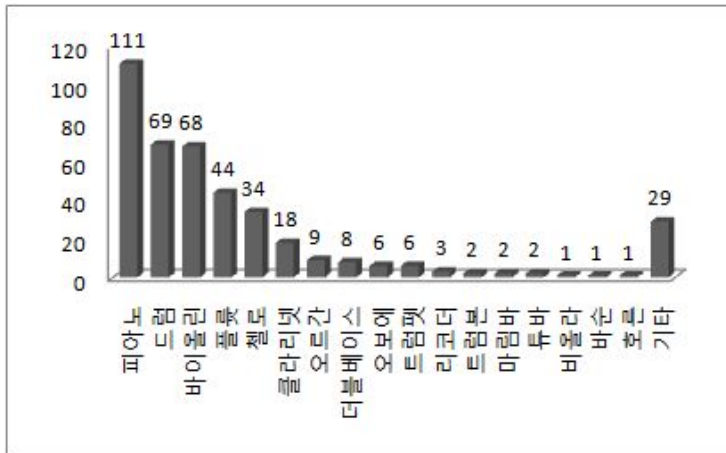
(있는 대로 개수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골라주세요)

<표5> 좋아하는 서양악기 빈도표

악기	빈도	악기	빈도	악기	빈도
피아노	111	오르간	9	마림바	2
드럼	69	더블베이 스	8	튜바	2
바이올린	68	오보에	6	비올라	1
플룻	44	트럼펫	6	바순	1

악기	빈도	악기	빈도	악기	빈도
첼로	34	리코더	3	호른	1
클라리넷	18	트럼본	2	기타	29

<그림7> 좋아하는 서양악기 빈도



중학교 1-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질문한 좋아하는 악기는 다음 표와 같이 피아노 - 드럼 - 바이올린 - 플루트 - 첼로 - 클라리넷 - 오르간 - 더블베이스 - 호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원이나 개인교습과 같은 형태의 사교육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피아노와 바이올린 외에 실용음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증가에 따라 '드럼'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학교의 정규음악수업에서 사용되는 '리코더'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좋아하는 국악기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악기를 좋아 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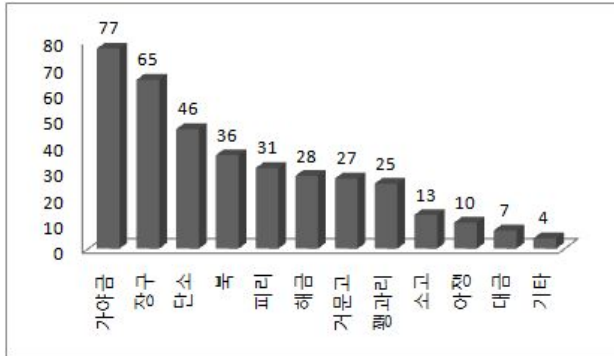
(있는 대로 개수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골라주세요)

<표6> 좋아하는 국악기 빈도표

악기	빈도	악기	빈도	악기	빈도
가야금	77	피리	31	소고	13
장구	65	해금	28	아쟁	10
단소	46	거문고	27	대금	7

악기	빈도	악기	빈도	악기	빈도
북	36	쟁과리	25	기타	4

<그림8> 좋아하는 국악기 빈도



국악에 대한 관심도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서양악기에 비해 대체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인다. 좋아하는 악기는 '가야금 - 장구 - 단소 - 북 - 피리 - 해금- 거문고 - 쟁과리 - 소고 - 아쟁 - 대금' 의 순서로 나타났다. 서양악기에 비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악기에도 다양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5) 좋아하는 악기 중 다룰 수 (연주할 수) 있는 악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표7> 다룰 수 있는 서양악기 빈도표

악기	빈도	악기	빈도	악기	빈도
피아노	115	비올라	1	트럼펫	0
바이올린	19	트럼본	1	튜바	0
드럼	17	마림바	1	호른	0
리코더	14	첼로	1	기타	14
플룻	11	클라리넷	1	없음	5
오르간	7	더블베이스	1		
오보에	1	바순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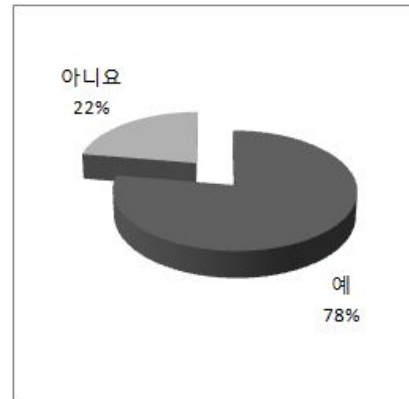
가 전체적으로 많았다. 교과과정에 포함된 단소와 장구를 답한 학생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7) 학교 정규 음악수업 외에 음악에 관련된 레슨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표9> 기악교육 유무 빈도표

	빈도	퍼센트
예	118	77.6
아니요	34	22.4
합계	152	100.0

<그림11> 기악교육 유무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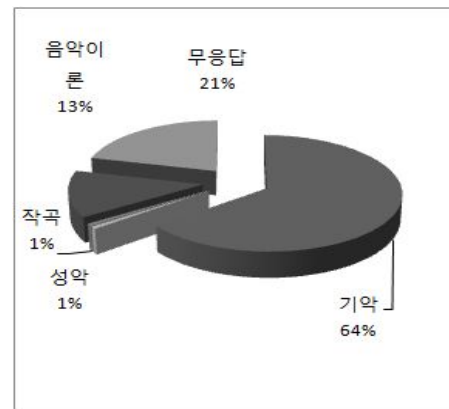
학교 정규수업 외의 음악에 관련된 레슨을 받아본 학생은 118명, 음악레슨의 경험이 없는 학생은 34명으로 레슨경험이 있는 학생의 수가 확연하게 더 많았다.

(8) 만약 있었다면 어떤 분야였습니까?

<표10> 음악교육 분야 빈도표

	빈도	퍼센트
기악	98	64.5
성악	1	0.7
작곡	1	0.7
음악이론	20	13.2
무응답	32	21.1
합계	152	100.0

<그림12> 음악교육 분야 분포



음악교육의 경험이 있는 학생 중 64%에 해당하는 98명의 학생이 기악레슨의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 외의 학생은 음악이론과 성악, 작곡의 순으로 나타났다.

(9) 레슨을 시작했던 연령은 언제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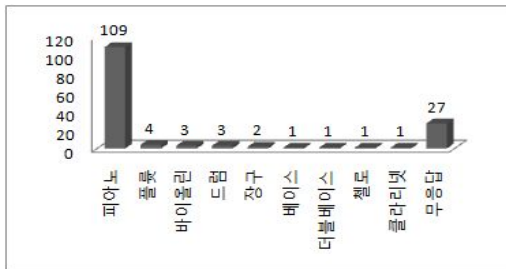
<표11> 기악교육 시작악기 빈도표

	빈도	퍼센트
피아노	109	71.7
플룻	4	2.6
바이올린	3	2.0
드럼	3	2.0
장구	2	1.3
베이스	1	0.7
더블베이스	1	0.7
첼로	1	0.7
클라리넷	1	0.7
무응답	27	17.8
합계	15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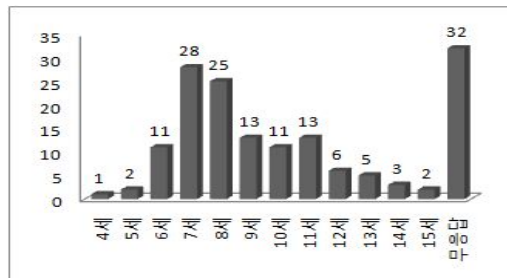
<표12> 기악교육 시작연령 빈도표

연령	빈도	퍼센트
4세	1	0.7
5세	2	1.3
6세	11	7.2
7세	28	18.4
8세	25	16.4
9세	13	8.6
10세	11	7.2
11세	13	8.6
12세	6	3.9
13세	5	3.3
14세	3	2.0
15세	2	1.3
무응답	32	21.1
합계	152	100.0

<그림13> 기악교육 시작악기 빈도



<그림14> 기악교육 시작연령 빈도



학생들의 답변 중 처음 배운 악기와 가장 오랜 기간을 두고 배웠던 악기를 대표악기로 하여 분석한 결과, 피아노를 배운 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처음 기악교육을 시작한 나이는 7세-8세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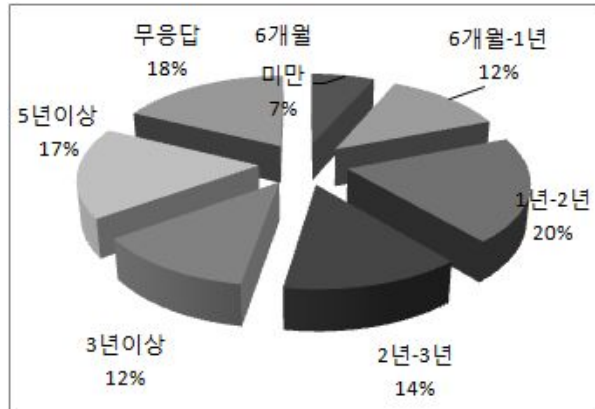
(10) 레슨을 받았던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표13> 기악교육 기간 빈도표

기간	빈도	평균
----	----	----

<그림15> 기악교육 기간 분포표

기간	빈도	평균
6개월 미만	10	6.6
6개월-1년	19	12.5
1년-2년	30	19.7
2년-3년	21	13.8
3년이상	19	12.5
5년이상	26	17.1
무응답	27	17.8
합계	15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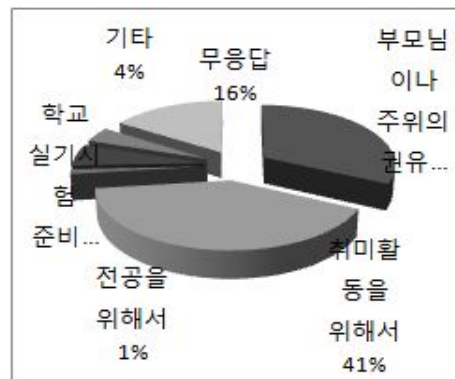
대표악기의 레슨을 받았던 기간은 1-2년 정도가 가장 많았지만 대체적으로 고른 분포를 갖고 있었다. 1-3년의 짧은 기간 동안 레슨을 받은 학생도 많았지만 3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레슨을 받은 학생의 수도 45%에 달했다.

(11) 레슨을 받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표14> 기악교육 시작 동기 빈도표

동기	빈도	퍼센트
부모님이나 주위의 권유로	49	32.2
취미활동을 위해서	62	40.8
전공을 위해서	2	1.3
학교 실기시험 준비를 위해	9	5.9
기타	6	4.0
무응답	24	15.8
합계	152	100.0

<그림16> 기악교육 시작동기 분포



악기를 배우게 된 동기는 부모님과 주위의 권유로 시작하게 된 학생의 수가 많았다. 이는 가정의 환경이나 부모의 음악교육에 대한 인식과 기호에 따라 자녀에게 행해질 수 있는 음악교육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2) 현재 학교 정규수업 외에 음악에 관련된 레슨을 받고 있습니까?

<표15> 현재의 기악교육 빈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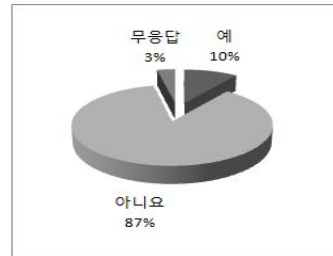
	빈도	퍼센트
예	15	9.9
아니요	132	86.3
무응답	5	3.3
합계	152	100.0

있다면 어떤 레슨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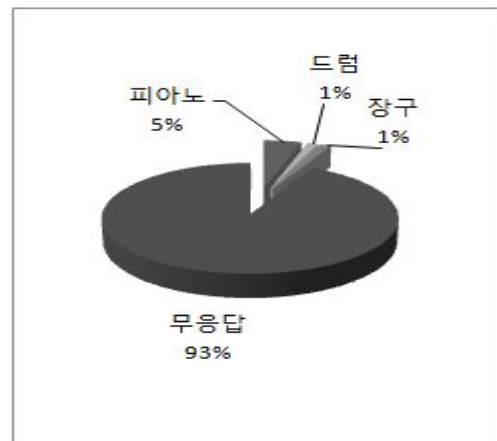
<표16> 현재 레슨중인 악기 빈도표

악기종류	빈도	퍼센트
피아노	7	4.6
드럼	2	1.3
장구	2	1.3
무응답	141	92.1
합계	152	100.0

<그림17> 현재의 기악교육 분포



<그림18> 현재 레슨중인 악기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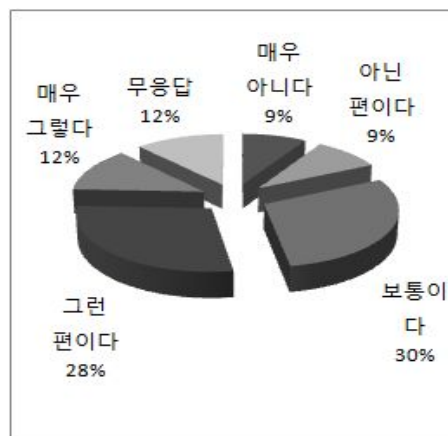
중학생을 대상으로 현재 레슨을 받고 있는가를 묻는 항목인데 9.9%의 학생만이 현재 레슨을 받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레슨을 받고 있는 악기의 종류도 처음의 것과 변화를 보이고 있다.

(13) 과거에 레슨을 받은 경험이 현재 음악에 대한 흥미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표17> 기악교육경험과 흥미의 영향

	빈도	퍼센트
매우 아니다	13	8.6
아닌 편이다	14	9.2
보통이다	45	29.6
그런 편이다	43	28.3
매우 그렇다	19	12.5
무응답	18	11.8
합계	152	100.0

<그림19> 기악교육경험과 흥미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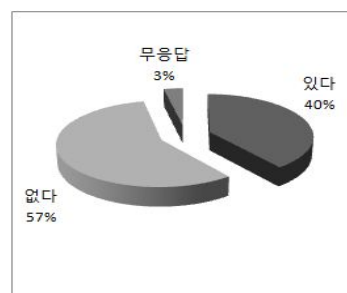
과거의 레슨을 받은 경험이 현재 음악에 대한 흥미에 영향을 주는가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학생(70.4%)이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었다. 이것은 기악교육을 통한 음악경험이 학생 자신이 음악에 대하여 느끼는 흥미를 높여준다고 볼 수 있다.

(14) 가족과 함께 음악 공연을 관람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표18> 가정내의 음악공연 관람 빈도표

	빈도	퍼센트
있다	60	39.5
없다	87	57.2
무응답	5	3.3
합계	152	100.0

<그림20> 가정내의 음악공연관람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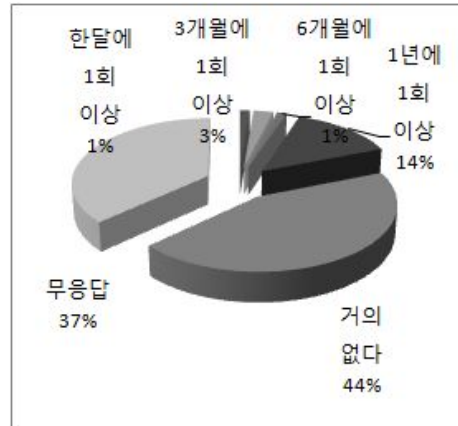
가족들과 함께 음악공연을 관람하는 학생의 수가 39.5%로 관람하지 않는 학생 수 57.2%보다 적게 나타났다. 많은 학생들이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음악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적 조건, 분위기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14) - 1 있다면 얼마나 자주 관람 하십니까?

<표19> 가정내 공연관람 빈도

	빈도	퍼센트
한달에 1회 이상	2	1.3
3개월에 1회 이상	4	2.6
6개월에 1회 이상	2	1.3
1년에 1회 이상	21	13.8
거의 없다	67	44.1
무응답	56	36.8
합계	152	100.0

<그림21> 가정내 공연관람 빈도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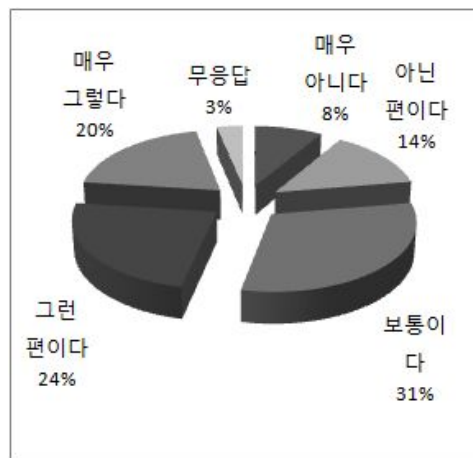
가족 내에서의 음악적 활동이 있다고 답한 학생들 안에서 그 횟수를 조사한 결과, 음악공연과 같은 음악적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5) 가정에서 음악 감상이나 연주와 같이 음악을 접하는 기회가 있습니까?

<표20> 가정내 음악환경 빈도표

	빈도	퍼센트
매우 아니다	13	8.6
아닌 편이다	21	13.8
보통이다	47	30.9
그런 편이다	36	23.7
매우 그렇다	30	19.7
무응답	5	3.3
합계	152	100.0

<그림 22>가정내 음악환경 빈도분포



분석결과 가정에서 음악감상 이나 연주 같은 음악적 활동과 경험을 한다고 긍정적인 대답을 한 학생의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2) 학부모 설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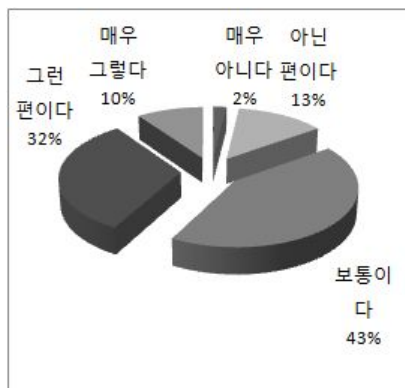
연구대상인 중학교 1, 2, 3학년 학생들에게 음악적 흥미, 기악교육경험의 유무, 시 작연령, 교육 기간, 가정 내의 음악적 환경을 질문지를 통해 조사하였고, 학생들의 답변의 신뢰도를 더하기 위해 각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설문 조사하여 학생의 결과 와 함께 세트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 후 결과에 따라 항목별로 빈도 분석하였다.

(1) 학부모님께서서는 음악을 좋아하고,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표21> 학부모의 음악흥미도

	빈도	퍼센트
매우 아니다	3	2
아닌 편이다	20	13.2
보통이다	65	42.8
그런 편이다	49	32.2
매우 그렇다	15	9.9
합계	152	100.0

<그림23> 학부모의 음악흥미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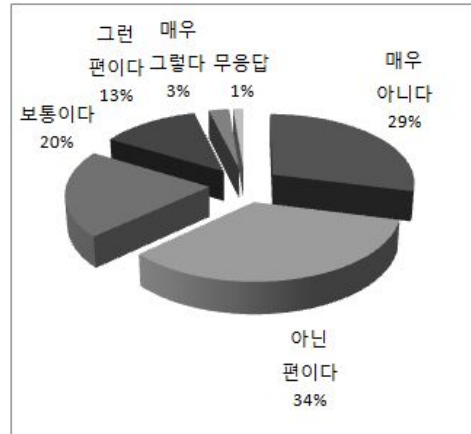
학부모들의 음악에 대한 흥미는 보통(42.8%)과 긍정적인 대답(42.1%)이 대체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2) 학부모님께서서 음악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표22> 학부모의 음악교육경험

	빈도	퍼센트
매우 아니다	44	28.9
아닌 편이다	52	34.2
보통이다	31	20.4
그런 편이다	19	12.5
매우 그렇다	4	2.6
무응답	2	1.3
합계	152	100.0

<그림24> 학부모의 음악교육경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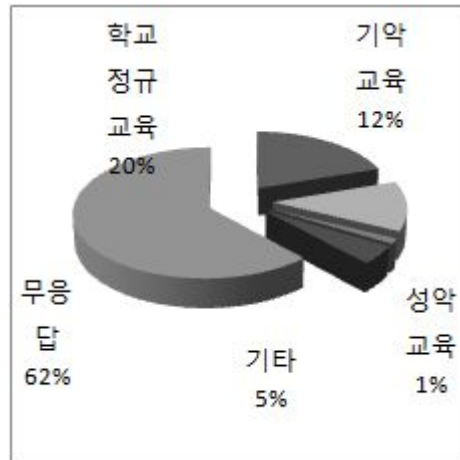
연구 대상인 학생들의 학부모님은 음악교육을 받은 분들 보다 음악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 1 있다면 어떤 것 입니까?

<표23>학부모의 음악교육

	빈도	퍼센트
학교 정규교육	30	19.7
기악교육	19	12.5
성악교육	2	1.3
기타	7	4.6
무응답	94	61.8
합계	152	100.0

<그림25> 학부모의 음악교육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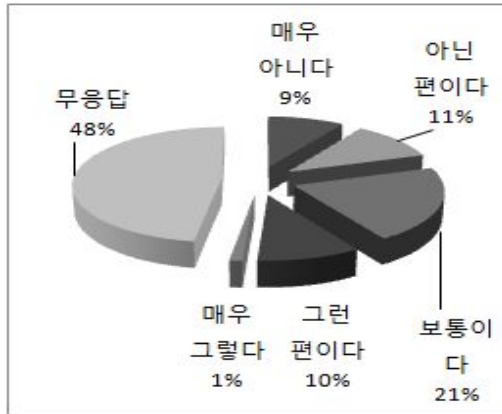
많은 수의 학부모님들이 무응답으로 기재해 주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와 종류는 알 수 없지만 학교정규교육을 제외하고 다양한 음악교육의 경험을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 - 2 학부모님께서 과거에 레슨을 받은 경험이 귀하의 음악에 대한 흥미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표24> 기악교육 경험과 흥미도

	빈도	퍼센트
매우 아니다	9	9.5
아닌 편이다	17	11.2
보통이다	33	21.7
그런 편이다	16	10.5
매우 그렇다	2	1.3
무응답	75	49.3
합계	152	100.0

<그림26> 기악교육 경험과 흥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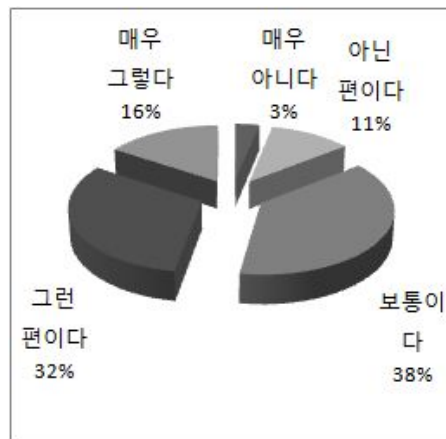
과거의 음악교육 경험이 부정적인 영향보다 음악의 흥미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자녀교육에서의 조기 음악교육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표25> 조기 음악교육의 중요성

	빈도	퍼센트
매우 아니다	5	3.3
아닌 편이다	17	11.2
보통이다	58	38.2
그런 편이다	48	31.6
매우 그렇다	24	15.8
합계	152	100.0

<그림27> 조기 음악교육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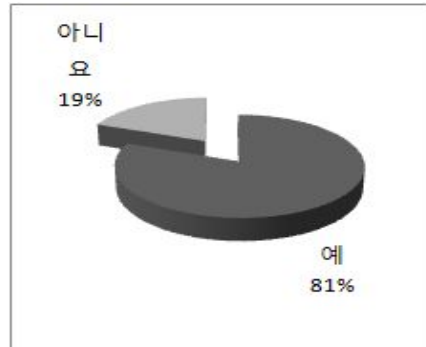
자녀교육에서의 음악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자녀에게 학교교육 이외의 음악교육을 시킨 적이 있으십니까?

<표26> 자녀의 음악교육 실시 빈도

	빈도	퍼센트
예	123	80.9
아니요	29	19.1
합계	152	100.0

<그림28> 자녀의 음악교육 실시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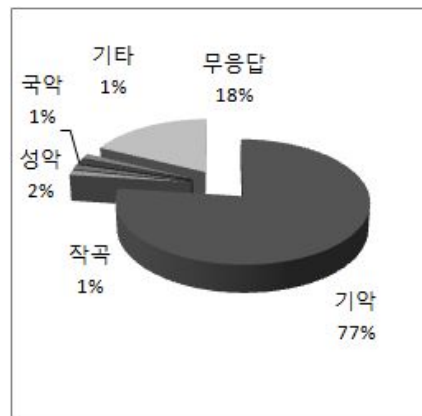
대다수의 학부모들(80.9%)이 자녀에게 음악교육을 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자신의 음악적 경험은 부족하였지만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자녀에게 음악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4) - 1. 있다면 어떠한 분야입니까?

<표27> 자녀의 음악교육 분야

	빈도	퍼센트
기악	117	77.0
성악	2	1.3
작곡	2	1.3
국악	2	1.3
기타	2	1.3
무응답	27	17.8
합계	152	100.0

<그림29> 자녀의 음악교육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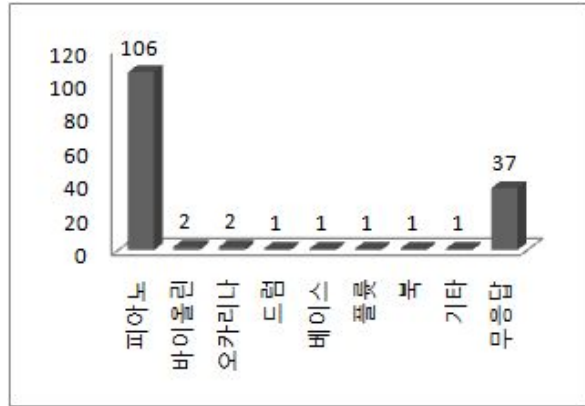
자녀에게 음악교육을 실시한 학부모들은 대체적으로 기악교육의 기회를 가장 많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변에서 접하기 쉽고 가장 처음 시작할 수 있는 음악교육이 기악교육임을 보여준다.

(4) - 2. 기악이라면 어떤 악기를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교육 하였습니다습니까?

<표28> 음악교육 악기

	빈도	퍼센트
피아노	106	69.7
바이올린	2	1.4
오카리나	2	1.4
드럼	1	0.7
베이스	1	0.7
플룻	1	0.7
북	1	0.7
기타	1	0.7
무응답	37	24.3
합계	15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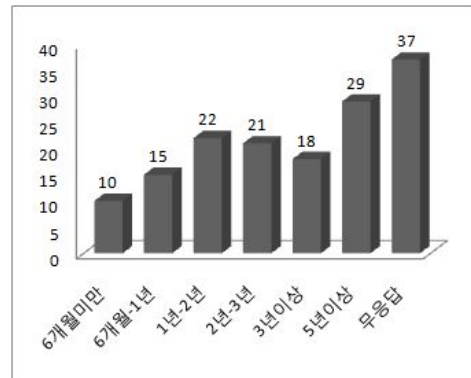
<그림30> 음악교육 악기 빈도



<표29> 음악교육의 기간

	빈도	퍼센트
6개월미만	10	6.6
6개월-1년	15	9.9
1년-2년	22	14.5
2년-3년	21	13.8
3년이상	18	11.8
5년이상	29	19.1
무응답	37	24.3
합계	152	100.0

<그림31> 음악교육의 기간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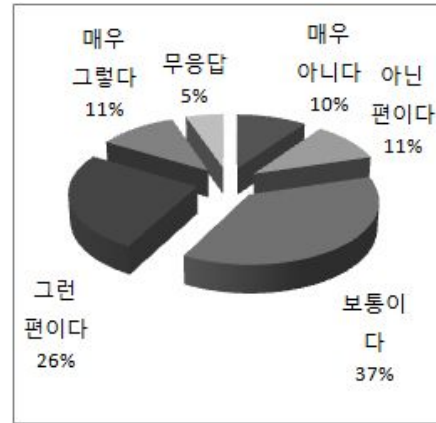
배운 기간이 가장 긴 대표악기를 중심으로 분석해 본 결과, 피아노 교육이 가장 많은 수를 보였으며 기간은 5년 이상 이라는 응답이 19.1%로 가장 많았고 대체적으로 2년 이상 비교적 긴 기간 동안 교육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5) 레슨에 대한 자녀의 흥미는 어떠하였습니까?

<표30> 레슨에 대한 자녀의 흥미

	빈도	퍼센트
매우 아니다	15	9.9
아닌 편이다	16	10.5
보통이다	57	37.5
그런 편이다	39	25.7
매우 그렇다	17	11.2
무응답	8	5.3
합계	152	100.0

<그림32> 레슨에 대한 자녀의 흥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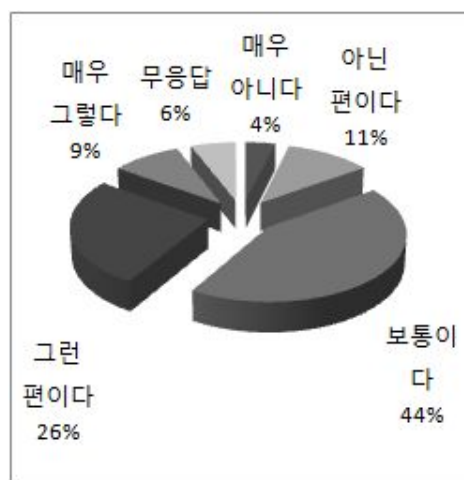
음악교육에 대한 자녀의 흥미도는 대체적으로 긍정적 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아동 본인이 느끼는 흥미와 부모의 관찰자로서의 시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6) 레슨에 대한 자녀의 성취도는 어떠하였습니까?

<표31> 레슨에 대한 자녀의 성취도

	빈도	퍼센트
매우 아니다	6	3.9
아닌 편이다	17	11.2
보통이다	66	43.4
그런 편이다	40	26.3
매우 그렇다	14	9.2
무응답	9	5.9
합계	152	100.0

<그림33> 레슨에 대한 자녀의 성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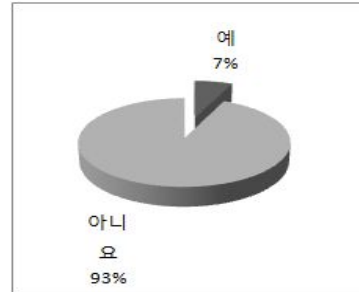
음악교육에 대한 성취도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학부모들이 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자녀가 현재 학교 정규수업 외에 음악에 관련된 레슨을 받고 있습니까?

<표32> 자녀의 현재 음악교육 여부

	빈도	퍼센트
예	10	6.6
아니요	142	93.4
합계	152	100.0

<그림34> 자녀의 현재 음악교육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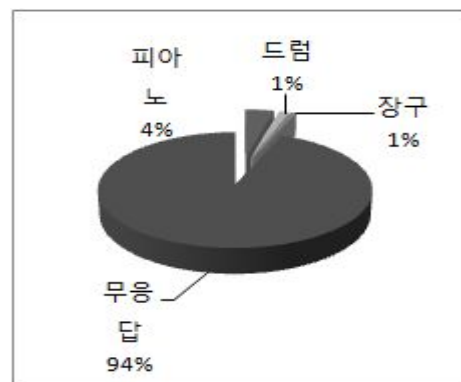
중학생이 대상인 연구결과, 음악교육이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는 6.6% 밖에 미치지 못했다. 학업공부와 학생 개인적 흥미에 따라 학교의 정규음악과정 내의 음악교육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학생에게 음악교육과 음악 경험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 1. 있다면 어떤 레슨입니까?

<표33> 현재의 기악교육

	빈도	퍼센트
피아노	6	3.9
드럼	2	1.4
장구	1	0.7
무응답	143	94.1
합계	152	100.0

<그림35> 현재의 기악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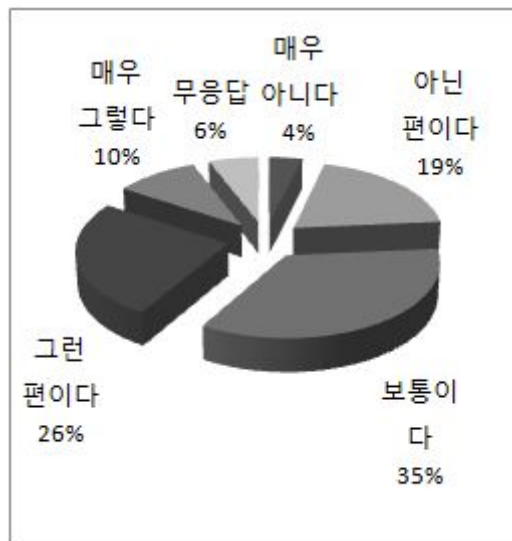
적은 수지만 현재 음악레슨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던 피아노교육이 가장 많은 비율로 현재까지 레슨을 받고 있고, 드럼과 장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8) 자녀가 과거에 레슨을 받은 경험이 현재 자녀의 음악에 대한 흥미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표34> 기악교육과 음악의 흥미도

	빈도	퍼센트
매우 아니다	6	3.9
아닌 편이다	30	19.7
보통이다	53	34.9
그런 편이다	39	25.7
매우 그렇다	15	9.9
무응답	9	5.9
합계	152	100.0

<그림36> 기악교육과 음악의 흥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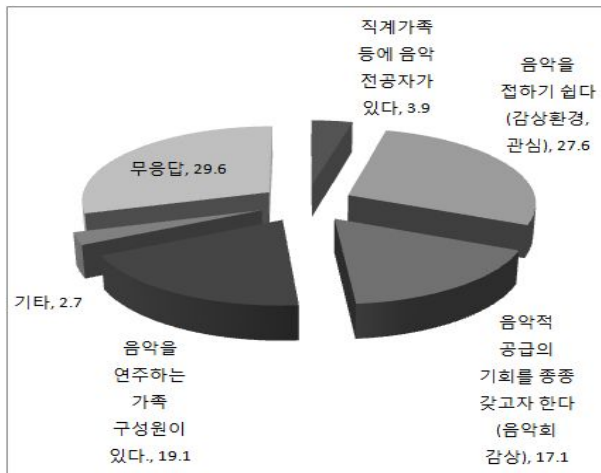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매우 그렇다' 라는 항목이 '매우 아니다' 라는 항목보다 적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조기 기악교육을 통한 음악에의 흥미증가에 대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9) 귀댁 가정의 음악적인 환경에 알맞은 것이 있습니까?

<표35> 가정의 음악적 환경 빈도표

	빈도	퍼센트
직계가족 등에 음악 전공자가 있다	6	3.9
음악을 접하기 쉽다 (감상환경, 관심)	42	27.6
음악적 공급의 기회를 종종 갖고자 한다 (음악회 감상)	26	17.1
음악을 연주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	29	19.1
기타	4	2.7
무응답	45	29.6
합계	152	100.0

<그림37> 가정의 음악적 환경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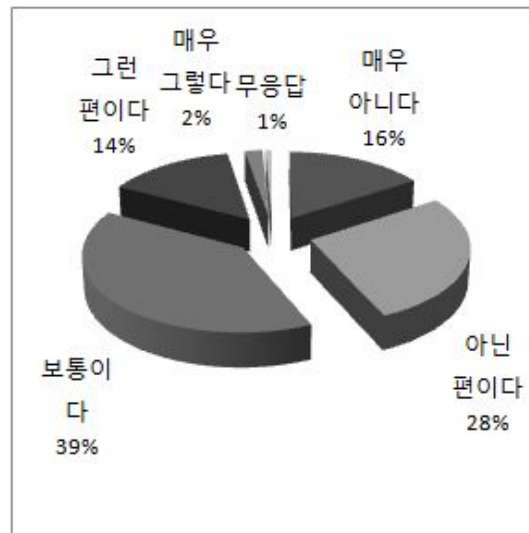
대체적으로 음악을 가까이 하고 자주 접할 수 있는, 음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가정 내 환경적 요소로 음악을 접할 수 있는 음악 감상과 연주, 음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10) 자녀의 삶에서 음악성향상을 위한 투자와 공급이 계속되길 바라고 적극적인 음악교육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

<표36> 적극적인 음악교육계획

	빈도	퍼센트
매우 아니다	24	15.8
아닌 편이다	42	27.6
보통이다	60	39.5
그런 편이다	22	14.5
매우 그렇다	3	2.0
무응답	1	0.7
합계	152	100.0

<그림38> 적극적인 음악교육계획



음악성 향상을 위한 투자와 공급이 계속되고 적극적인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긍정적 이거나 부정적인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한국음악적성검사(KMAT)와 음악인지능력검사의 결과 및 분석

1) 한국음악적성검사와 음악인지능력검사의 신뢰도

(1) 한국음악적성(리듬+ 가락점수)의 신뢰도 분석

음악적성검사에 있어서 크론바흐 알파계수가 .839로 굉장히 높다. 따라서 음악적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표37> 한국음악적성검사 신뢰도

Cronbach의 알파	항목수
.839	60

(2) 리듬점수 신뢰도 분석

리듬점수에 있어서 크론바흐 알파계수가 .747로 높다. 따라서 리듬점수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표38> 리듬점수 신뢰도

Cronbach의 알파	항목수
.747	30

(3) 가락점수 신뢰도 분석

가락점수에 있어서 크론바흐 알파계수가 .809로 굉장히 높다. 따라서 가락점수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표39> 가락점수 신뢰도

Cronbach의 알파	항목수
.809	30

(4) 음악 인지능력검사 신뢰도 분석

음악 인지능력검사에 있어서 크롬바흐알파계수가 .495로 많이 낮다. 따라서 음악 인지능력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표40> 음악 인지능력검사 신뢰도

Cronbach의 알파	항목수
.495	40

2) 한국음악적성검사와 음악인지능력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1) 한국음악적성검사의 평균분석과 성별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

본 연구대상의 한국음악적성검사의 평균분석과 성별에 따른 평균과 표준 편차는 다음 <표41> 와 같다. 성별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 했을 때 여학생의 음악 적성검사점수가 리듬, 가락점수를 포함하여 각 항목마다 남학생 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표41> 한국음악적성검사의 평균분석과 성별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리듬	가락	합계	리듬	가락	합계
연구대상	25.7396	24.7813	50.5208	3.50712	4.24314	6.44651
성별						
남	25.1064	23.4468	48.5532	3.59489	4.40755	6.74958
여	26.3469	26.0612	52.4082	3.34509	3.68786	5.58241

(2) 음악인지능력검사의 평균분석과 성별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

본 연구대상의 음악인지능력검사의 평균분석과 성별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 <표42>과 같다. 음악적성검사와 마찬가지로 여학생의 평균점수가 남학생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

<표42> 음악인지능력검사의 평균분석과 성별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연구대상	25.9013	3.92101
성별 남	25.2203	3.25400
여	26.3333	4.25117

3. 15세 이전의 기악교육과 음악적성검사, 음악인지능력검사 간의 상관관계 분석

15세 이전에 행해진 기악교육과 음악적성, 음악 인지능력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현경실(2004)의 한국음악적성검사(KMAP), 최은식(2007)의 음악인지능력검사와 본 연구자가 개발, 조사한 설문검사를 실시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의 기악교육경험의 유무, 악기, 기간에 따라 검사결과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악교육경험과 음악적성, 음악인지 능력과의 상관관계

학교의 정규 음악수업 외에 음악에 관련된 레슨을 받아본 적이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음악적성검사와 음악 인지능력 검사점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예"라고 답변한 학생의 점수가 가락점수에서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학교교육 이외의 음악교육 경험을 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가락점수가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43> 기악교육 경험과 가락점수와의 상관계수

		N	평균	t	유의도
가락점수	예	81	25.2840	2.792 **	.006
	아니오	15	22.0667		
음악적성점수	예	81	50.9877	1.664	.099
	아니오	15	48.0000		
음악인지능력점수	예	81	24.9753	1.709	.091
	아니오	15	24.2000		

2)기악교육을 실시했던 기간과의 상관관계

기악교육을 실시한 기간이 길수록 음악적성검사의 가락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즉, 한 가지 악기를 지속적으로 교육한 기간이 길수록 가락점수($r=.301$)의 유의도가 .01보다 작으므로 기간과 가락점수와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44>에서와 같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체적으로 가락점수의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간에 따라 구별된 각 집단 구성원의 개별적인 음악적 능력과 급간별 인원의 차이가 있으므로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 자료는 학생보다 학부모의 기억이 더 신뢰할 만한 결과로 생각되어 학부모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였고, 학부모의 답변을 기준으로 하였다.

<표44> 기악교육 기간에 따른 가락 평균점수

	6개월 미만	6개월 -1년	1-2년	2-3년	3년이상	5년이상
인원	6	13	14	17	9	16
가락점수 평균	21.1667	24.9231	25.9286	26.0588	24.5556	26.3750

<표45> 기악교육 기간과 음악적성 가락점수와의 상관계수

	가락점수 Pearson 상관계수	유의도
기간	.301 **	.007

3) 기악교육 시작동기에 따른 음악적성검사 점수와의 상관관계

기악교육의 시작동기에 대하여 부모님이나 주위의 권유, 취미활동을 위해, 전공을

위하여, 학교실기시험 준비를 위하여, 기타의 항목을 두고 질문하였는데, 취미활동을 위하여 기악교육을 받은 학생과 음악적성검사 점수가 정적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음악적성검사의 상관계수는 $r=.280$ 으로 리듬과 가락 중 특히 가락점수의 상관계수가 $r=.264$ 로 나타나, 기악교육의 동기가 필요가 아닌 자발적인 흥미와 취미활동으로 답변한 학생의 음악적성 점수가 높게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표46> 기악교육 시작동기와 음악적성검사의 상관계수

	취미활동을 위해서
가락점수 Pearson 상관계수	.264 **
음악적성 점수 Pearson 상관계수	.280 **

4. 음악흥미도와 음악적성, 음악인지능력간의 상관관계 분석

기악교육경험이 음악흥미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자가 개발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상관성을 알아보았다. 또한 음악흥미도와 음악적성, 음악인지능력간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지와 음악적성검사, 음악인지능력검사의 점수를 사용하여 상관관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음악에 대한 흥미와 기악교육 경험의 영향과 상관관계

앞서 빈도분석에서 「기악교육이 음악에 대한 흥미에 영향을 주는가」하는 질문에 68.7%의 학생들이 '보통이다' 이상의 긍정적인 답변을 하여 기악교육경험을 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높은 음악에 대한 흥미도를 갖고 있다는 결과를 보았다. 이 문항에 대하여 기악교육경험이 있고 음악에 흥미를 갖고 있는 학생의 음악적성검사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악교육의 경험이 현재 음악에 대한 흥미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학생 일수록 가락점수($p<.01$, $r=.302$)와 음악적성검사 점수($p<.05$, $r=.228$)에 있어서 정적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나타났다.

<표47> 기악교육 경험에 의한 음악흥미도의 영향과 음악적성간의 상관계수

기악교육경험이 흥미도에 영향을 미친다	
가락점수 Pearson 상관계수	.302 **
음악적성검사점수 Pearson 상관계수	.228 *

2) 음악에 대한 흥미도와 음악 인지능력과의 상관관계

「음악을 좋아한다」고 답변한 학생의 음악인지능력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즉,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과 음악인지능력 검사점수가 정적상관관계($p < .05$, $r = .251$)를 갖는다.

<표48> 음악에 대한 흥미도와 음악 인지능력과의 상관계수

음악을 좋아한다	
음악인지능력 Pearson 상관계수	.251 *

3) 좋아하는 음악장르와 음악적성 검사의 상관관계

대중음악을 좋아한다고 답변한 학생의 음악적성은 정적상관관계, 즉 상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음악은 발라드와 댄스, 힙합과 같은 클래식과 국악을 제외한 실용음악을 그 범위로 하였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대중매체를 쉽게 접하고 받아들이는 연구대상이 좋아하는 음악의 장르로 '대중음악' 이라고 답변한 학생이 많았다. 대중음악을 좋아하는 학생과 음악적성 검사의 리듬점수, 가락점수의 유의도가 .05보다 작으므로 두 가지는 정적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49> 좋아하는 음악장르와의 음악적성 검사와의 상관계수

	리듬점수	가락점수	음악적성검사
대중음악 Pearson 상관계수	.223*	.209*	.259*

4) 학부모의 음악흥미도와 학생의 음악적성, 음악 인지능력과의 상관관계

학부모가 음악을 좋아하고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가락점수($r=.226$), 음악적성점수($r=.205$), 음악 인지능력점수($r=.279$)의 유의확률이 .05보다 낮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즉, 학생의 가락점수, 음악적성점수, 음악 인지능력점수가 학부모의 음악에 대한 흥미도와 정적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50> 학부모의 음악흥미도와 학생의 음악적성, 음악인지능력과의 상관계수

	학부모의 음악 흥미도
가락점수 Pearson 상관계수	.226 *
음악적성검사점수 Pearson 상관계수	.205 *
음악인지능력검사점수 Pearson 상관계수	.279 **

5) 부모의 음악교육 계획과 음악적성과의 상관관계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앞으로 적극적인 음악교육을 계획하고 있을수록 학생의 음악적성검사 중 가락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즉 가락점수는 $r=.282$ 로 유의 확률이 .01보다 작으므로 학부모의 음악교육계획과 학생의 가락점수는 정적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음악교육에 관심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가정의 학생이 과거부터 음악적 경험과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음악적성도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 할 수 있다.

<표51> 부모의 음악교육 계획과 음악적성과의 상관계수

적극적인 음악교육 계획	
가락점수 Pearson 상관계수	.282 **

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음악적 능력은 선천적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음악적 경험과 환경, 훈련에 따라 후천적으로 발달되기도 한다. 음악적 능력을 개발, 발달하도록 교육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제시되는데, 모든 교육방법들에 공통적으로 중시하는 것이 바로 어릴 때 음악적 자극을 통해 음악성을 개발하고 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9세 이전에 형성된 개인의 음악성은 고착되고, 그 때를 지나면 음악성을 향상시키거나 개발되어지기는 더욱 어렵다고 여러 음악교육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 따라서 현대의 음악교육은 조기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각 가정에서는 공교육과 사교육을 포함하여 아동의 음악성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조기음악교육은 유아음악, 실기 레슨, 합주, 합창, 노래지도, 음악극, 즉흥연주 등 음악교육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다양한 방법과 기간, 시작연령의 차이를 갖는다.

본 연구는 중학교 학생들의 기악교육 경험의 유무와 음악에 대한 흥미도를 알고, 음악 인지능력, 음악적성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조사하여, 조기기악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음악성 계발을 위한 기악교육을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각 가정에서 음악성 신장을 기대하여 행해지는 기악교육이 학생의 실제적 음악성과 음악 인지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연구는 중학교 1~3학년 285명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의 기악교육을 통한 음악적 경험과 환경, 기악교육과 음악에 대한 흥미도를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하여 설문조사하고, 음악적성검사, 음악인지능력검사를 시행하여 그 자료를 SPSS 14.0 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분석하였다.

연구의 문제에 따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악교육 경험에 따라 음악적성의 가락점수와 정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악교육의 특성상 교육의 시작 연령보다 교육기간이 길수록 음악적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p < .05$, $r = .301$) 오랜

기간 기악교육을 통하여 심미적 체험을 하고, 음악적인 학습과 성취감을 느끼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음악적성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

둘째, 기악교육경험과 개인의 음악에 대한 흥미는 정적상관관계가 있다. 「기악교육이 음악에 대한 흥미에 영향을 주는가」하는 질문에 68.7%의 학생들이 '보통이다' 이상의 긍정적인 답변을 하여 기악교육경험을 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높은 음악에 대한 흥미도를 갖고 있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셋째, '음악에 대해 흥미가 있다' 고 대답한 학생의 가락점수를 포함한 음악적성검사의 점수가 '그렇지 않다' 고 대답한 학생에 비해 가락점수와는 $r=.302$, 음악적성검사 점수와 $r=.228$ 로 음악인지능력검사 점수가 $p<.05$, $r=.251$ 로 높은 상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악교육의 시작 동기가 부모의 권유나 학교수업에서의 보충과 수행평가 등에 대한 필요보다, 개인의 관심과 취미로 배우는 학생들의 음악적성 검사점수가 더 높게나와 시작동기와 음악적성과는 $r=.280$ 으로 정적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이것은 음악교육에 대한 관심과 의욕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음악적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흥미유발이라는 방법으로 효과적인 음악교육의 동기유발과 더욱 효과적인 지도 방법론을 개발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넷째, 가정에서의 음악적 환경과 음악교육에 대한 관심은 자녀의 음악적성과 음악인지능력과 상관관계가 있다. 학부모가 음악을 좋아하고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가락점수($r=.226$), 음악적성점수($r=.205$), 음악인지능력점수($r=.279$)의 유의확률이 .05보다 낮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는데 즉, 학생의 가락점수, 음악적성점수, 음악인지능력점수가 학부모의 음악에 대한 흥미도와 정적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음악에 대한 관심은 자녀의 음악교육으로 이어지는 결과로 나타났으며, 또 음악적 관심이 높은 부모의 자녀들의 음악적성검사, 음악인지능력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음악적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상관관계의 조사를 통해 기악교육의 경험과 음악적성과의 관계, 기악교육과 흥미도의 관계, 음악의 흥미와 음악적성과의 관계 등을 알아보았는데 특히 기악교

육과 음악적성은 단순히 경험이 있는 것과 구별되어 교육의 기간에 따라 그 상관성이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기악교육과 흥미도, 음악적성은 서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서로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가정에서는 여러 방법을 통하여 음악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중 기악교육을 통하여 자녀의 음악적 흥미가 높아지며, 나아가 음악적성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음악교육의 올바른 지표가 설정되기를 바라며 기초연구자료 제시를 통하여 음악교육 연구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 후속연구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15세 이전의 기악교육의 경험을 조사하여 이에 따른 음악적 흥미와 음악적성, 음악인지능력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서로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 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기악교육과 연관되어 좀 더 실제적이고 표준화 된 평가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악교육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음악적성과 음악인지능력을 평가 하였는데 이 검사만으로 기악교육과 다른 음악교육방법의 음악 교육적 효과에 대한 분별력을 갖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기악교육과 관련된 문항과 검사방법으로 구성되어있는 특성화된 검사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연구대상의 범위가 서울과 경기도 안산의 중학교 학생으로 다소 좁게 한정되었기 때문에 기악교육에 관한 전체적인 결과라고 하기 어렵다. 또 학부모용 설문검사의 경우 회수율이 적고 신뢰도를 검증하기에 쉽지 않아, 검사의 환경이 완전히 통제되기 어려웠다. 더 정확하고 분별력 있는 연구가 되기 위해 가족과 환경에 대한 조사를 할 때는 좀 더 넓은 범위의 대상선정으로 보편적이고 실제적인 자료를 마련하고 철저하고 객관적인 검사환경의 조성으로 타당성 있는 연구자료가 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기악교육의 영향과 효과에 대해서만 분석하였는데 현재의 음

악교육이 다양하고 체계적이며 통합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기악교육 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의 음악교육의 유무와 교육방법, 시작 연령, 기간, 효과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체계적인 자료의 확립이 필요하다. 또한 음악교육의 중요성과 필요를 인식하여 더욱 효과적이고 개인의 음악성 발달과 나아가 사회적인 음악교육의 당위성을 확립할 수 있어야 하며, 음악교육에의 활발하고 다양한 참여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아동의 잠재되어있는 음악적 능력을 계발하여 더욱 흥미있고 다양한 음악교육이 학교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 전반적인 인식 속에서 이루어져 마침내 음악의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목적에 이를 수 있는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